

# '통합의회 주도권' 잡아라...의장단 경쟁 점화

## 초대 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권역별 쟁점 복잡 특별시 출범 앞두고 주청사·본회의장 결정도 최대 현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초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광역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전국 첫 광역 통합의회가 출범하는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권역별 물밑 경쟁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오는 9일 영암군 호탈현대 바이 라한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첫 상견례와 함께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양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현황과 자치법규 정비 상황,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당선인 소개와 통합 추진 현안 보고, 자치법규 설명, 교육청 현안 보고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통합의회 운영과 관련한 현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의장단 선출 이전 당선인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탐색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의회의는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기능을 승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체계 정비와 자치법규 마련, 조직·예산 심의 등 핵심 과제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초대 의장단은 단순한 의회 운영 책임자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광주·전남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동시에 갖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

하면서 의장단 선거는 사실상 당내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을 중심으로 당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권역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 광역의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기보다 광주와 전남 각 권역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동·서부권과 광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의장단 경쟁과 함께 통합의회 주청사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둘러싼 논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오전 통합특별시가 정상 출범하기 위해서는 통합의회가 그 이전에 필수 자치법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첫 임시회 개최 장소와 의사일정을 조기에 확정해야 하지만 통합의회 주소재지와 본회의장 위치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만큼 관련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사무소 소재지와 청사 운영 방식 등 민감한 사안은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조례 의결이

후 공포 절차까지 마쳐야 해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만약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의장단 선출 문제와 청사 입지 논란이 맞물릴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필수 조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통합특별시의회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91명 규모로 구성된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비민주당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회 참여 폭도 향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협상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힘 실어

## 광역단체장 16곳 중 여 12곳·야 4곳 승리 국민의힘, 서울 수성 한동훈 보궐선거 당선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서울과 영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 교육감까지 지방 권력을 차지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4일까지 이어진 개표 결과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6곳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12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부산(전재수)을 비롯해 경기(추미애), 인천(박찬대), 대전(허태정), 충남(박수현), 충북(신용환), 강원(우상호), 전남광주(민형배), 전북(이원택), 제주(위성곤), 세종(조상호), 울산(김상욱)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서울(오세훈)과 텃밭 대구(추경호), 경북(이철우)과 경남(박완수) 등 4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국정 운영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 하는 정청래 총괄상임시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시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참패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차지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17곳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제외한 12곳을 쓸어담은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전국 14곳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9곳에서 당선자를 내 기존 의석보다 4석이 줄었다.

광주 광산을(임문영)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구(송영길) △경기 안산갑(김남국) △경기 안산남(김남국) △경기 하남갑(이광재) △충남 아산을(전은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4명이 당선됐다.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 평택을(유익동)을 비롯해 대구 달성군(이진숙), 울산 남구갑(김태규), 충남 공주·부여·청양(윤용근)을 차지했다.

막판까지 얽치락뒤치락하며 관심을 모

았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전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의석 수가 4석 줄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석이 늘었다. 야권 성향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합하면 5석이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도 민주당 165석·국민의힘 107석에서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바뀌었고, 무소속은 한 명이 더 늘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절반 생환 27곳 중 광주 4곳·전남 10곳 현역 '연임' 성공

6·3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14명이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구청장 5명 가운데 현역 단체장 4명이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현역 단체장 10명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27곳 가운데 16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당선돼 52%가 생환했다.

광주에서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병태 남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돼 연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일택 동구청장은 리턴매치에 나선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를 여유있게 꺾고 3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 소속인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진보당 정희성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 11명이 연임 도전에 나서 9명이 당선됐다.

나주 윤병태, 곡성 조상래,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해남 명현관, 무안 김산, 영암 우승희, 영광 장세일, 장성 김한중 후보가 생환했다.

재선에 나선 정인화 광양시장은 무

소속 박성현 후보에게 패배했고, 3선 도전에 나선 김성 장흥군수는 조국혁신당 사순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무릎을 꿇었다.

무소속은 현직 단체장 3명 가운데 1명만 생환했다.

강진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원 군수가 민주당 차영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순천에서는 노관규 시장이 민주당 손훈후 후보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직접 순천을 찾아 손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공을 들였다.

진도에서는 김희수 현 군수가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이재각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은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일부 지역은 무난하게 현직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권자들이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정 공고**

본지 2026년 5월 20일자에 게재된 주식회사 그린원드의 채권신고공고 중 청산인을 <김기남>에서 <박종호>로 정정공고함.

---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 사건번호: 2026나.1551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양정수(57년생~19\*\*\*\*)  
○ 최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신곡로 38-33, 206동 1101호 (신곡동, 신교2차우행마을(유령리(보통리)))  
○ 위임 정수승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의 규정에 따라 이 글을 공고함.  
○ 신고지역(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승중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공고인: 정해윤 (910421-2\*\*\*\*\*)  
○ 채권신고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대로 186, 101동 404호 (영남동, 경신로그래스아파트)  
○ 공판일: 2026년 5월 28일  
○ 한정승인수령일: 2026년 5월 28일

2026년 6월 5일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 | 3D 영상 / 모델링 / 조명도  
육 / 내외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9 (신안동, 2층)  
디에스엔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동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가 있으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곡학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웅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NACOS**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